# 보살계로 다시 살펴본 '삶과 죽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
**7월3일, 통도사 반야암 연구원서**

**'불교의 생사관과 불교의례' 주제로**
**"죽음 선택, '자비심'이 중요 기준돼**
**선업위한 죽음방법 自意 선택 필요"**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7월 3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불교의 생사관과 불교의례'를 주제로 제7회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목숨과 죽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타인의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살계에서는 이러한 목숨과 죽음에 대해 보살의 자비심과 연민심에 의한 방편이라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불교의례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이 7월 3일 통도사 반야암 내 연구원에서 '불교의 생사관과 불교의례'를 주제로 제7회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은 '보살계에 나타난 웰다잉'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자살·안락사 등 죽음을 보살계를 근거로 한 예외 상황을 언급하며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가치관을 제시했다.

먼저 법장 스님은 죽음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자비심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장 스님은 "자신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에 연명치료를 포기하거나, 혹은 가족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치료를 포기하는 결정을 자비심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보살의 방편행"이라며 "자리이타의 실천이기에 공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살계의 이런 방편행은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생명의 존엄과 관계된 여러 문제에서 불교적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죽음을 맞아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법장 스님은 "보살계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존재는 자신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 관계 속에서 삶이 형성된다. 이는 일체의 모든 것을 연기의 입장에서 설하는 불교적 관점의 연장선"이라며 "죽음을 앞두고 미안함이나 상처가 있는 관계가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남기고 떠나야 한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부 개회식에서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지안 스님의 개회사와 김성태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2부 학술대회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이 '보살계에 나타난 Well Dying'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명우 동의대 교수가 '불교의 중음세계와 지옥관(지장시왕경·예수시왕생칠경과 정법념처경을 중심으로)'을,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가 '불교의 추천·초도 의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각 주제 발표 이후에 동국대 박사 현암 스님과, 윤종갑 동아대 교수, 조수동 대구한의대 교수, 동국대 박사 신경 스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 구자상 동의대 교수가 논평했다. 학술대회는 주제발표 및 논평 후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김명우 교수는 "지옥이 필요한 이유와 136곳이나 되는 지옥을 설정한 연유는 근본적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경책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라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사상에 대한 학문적 고찰 및 연구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 2011년 설립됐다. 이후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불교학술대회 및 연구를 지원하고 반야학술상을 제정해 연구자를 격려하고 있다. 아울러 학술강연회, 불교경전 등을 강연하고 월간 반야 등 다양한 방편으로 학술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원장 지안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혼탁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사회를 맑히는 정화의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라고 불교의 참된 가르침이 전달되어 바른 인식을 제안하는 자리이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 불교를 널리 전하고 불교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인 죽음을 통해 삶을 알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윤회의 고리를 끊는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태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불교의 생사관을 전달해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선 스님 선서화전 개막

**'월인-묵언(月印-墨言)'**
**7월 3일~8월 6일,**
**범어사성보박물관**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선서화전이 열린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7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2층 전시실에서 주지 경선 스님의 선서화전 '월인-묵언(月印-墨言)'을 개최한다.

7월 3일 열린 개막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 금강암 주지 정만 스님, 범어사성보박물관 관장 환응 스님을 비롯해 김도흡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백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전호환 동명대 총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참가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경선 스님의 전시를 축하하며 글과 그림에 담긴 수행의 여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전시는 경선 스님이 첫 전시 후 11년 만에 여는 두 번째 전시로, 말로 전할 수 없는 오랜 수행의 깨달음을 묵향에 담아 언어 대신 마음으로 전하는 불립문자의 향연이라는 평가다.

경선 스님은 "범어사 주지 소임을 맡으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바쁜 시간 가운데서 붓을 잡으며 수행자의 본문을 생각했고 선서화는 정진의 도구가 되었다"며 "그림을 마주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수행의 기쁨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7월 3일 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 '성보박물관 신축이전 기념 힐링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박물관 불사 기간 동안 동참해준 불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진행됐으며 세종국악단 개막 연주로 시작해 김동규 바리톤, JGL아카펠라, 김영임 명창, 인기가수 알리가 화려한 무대를 펼쳤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부산불교문인협, 〈실상문학〉 통권 100권 발행

**'불심이 꽃피는 축제한마당' 개최**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가 7월 2일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창립 35주년 및 〈실상문학〉 통권 100호 발행을 기념하는 '불심이 꽃피는 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실상문학〉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불자 문인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문학에 담아 실천하고 안내하기 위한 부산불교문인협회 대표 문학지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혜총 대종사와 천룡사 주지 능지 스님, 관음정사 주지 보우 스님, 부산진구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차정연 회장 등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인 부산불교문인합창단의 음성공양 '합창'과 성복순 시인의 '여는 시'로 시작했으며 1부에서는 국민의례 및 삼귀의와 차정연 회장의 인사말, 혜총 대종사의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문인들에게 감사패와 공로상 및 신인상 등을 수여했다. 감사패는 혜총 대종사가 받았으며, 공로패는 강민수 수석자문위원이 받았다. 신인상은 전병열, 정지우, 이장옥, 김세희가 시 부문으로 당선돼 수상했다. 2부 축제한마당은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이 직접 장구, 민요, 축무, 하모니카 연주 등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펼치며 〈실상문학〉 100호 발행을 축하했다.

혜총 대종사는 "〈실상문학〉 속의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의 법문이라 생각한다. 투박하고 매끄러운 글의 겉모습 보다 의미에 가치를 두면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나의 스승이 될 것"이라며 "〈실상문학〉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문인들 개개인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각자 글을 부처님 모시듯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들이 모여 〈실상문학〉이 우주법계에 큰 광명을 발할 것이다"고 격려했다.

차정연 회장은 "통권 100호 발행까지 함께해준 모든 분들의 덕분이다. 먼저 불문협을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한 원광 스님께 오체투지를 올린다. 또 역대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불교문학인으로서의 선한 삶을 약속하고 불퇴전의 신심으로 수행하고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1988년 8월 26일 원광 스님을 초대 회장으로 창립해 같은 해 12월 5일 〈실상문학〉을 발간했다. 35주년을 맞아 통권 100호를 발행했으며, 문학기행 및 수계식, 마스크 나눔 봉사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이사장 혜총 스님은 1998년 〈실상문학상〉을 지정해 불교문인들을 격려하며 매년 연말 시상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진각국사 혜심 스님 다례재 봉행


진각국사선양회는 6월 24일 화순문화원에서 혜심 스님 다례재를 봉행했다.

고려의 2대 국사인 진각국사 혜심스님의 다례재가 봉행됐다. (사)진각국사선양회(대표 도균)는 6월 24일 화순문화원에서 혜심 스님 탄신 844주년을 맞아 다례재와 지역주민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행사에는 도균 스님을 포함해 흥산스님(세계불교승황성 이사장), 박철언 화순부군수, 이형일 前 화순문화원 원장, 김형래 화순문화원장을 포함해 2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올해 17년째 이어진 다례재는 식전행사에 이어 꽃피움절의 육법공양, 법패의식, 헌시 낭독, 축사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과 축하공연으로 의미를 더했다.

도균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혜심 스님은 고려 무신정권시대에 백성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 분으로, 오늘날 큰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공덕을 찬탄했다.

박철언 부군수도 축사를 통해 "화순에서 태어나신 혜심 스님은 화순을 빛낸 큰 어른이고,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17년째 다례재를 봉행 중인 (사)진각국사선양회는 그동안 학술대회, 경로 위안잔치를 통해 혜심 스님의 가르침과 뛰어난 애민애족 사상을 지역에 전파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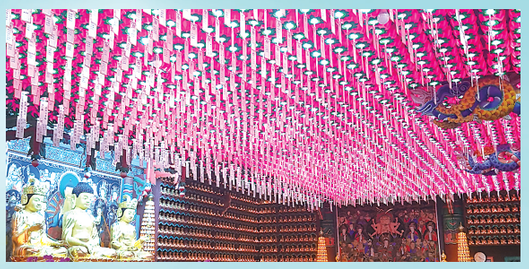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